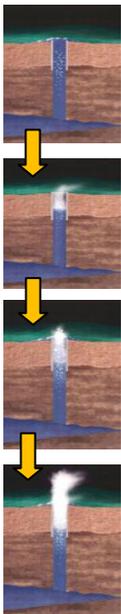


자연의 신비로움이 느껴지는 간헐천이 흐르는 「시카베(鹿部)」

홋카이도 남단인 하코다테의 북쪽에 위치해 있는 시카베초(鹿部町). 이곳에는 세계적으로 드문 간헐천이 솟아오르고 있는데, 간헐천이란 일정 간격으로 지면에서 분출해 나오는 온천을 말합니다. 시카베초의 간헐천은 1924년 온천을 팔 때 우연히 발견된 것으로 10분 간격으로 분출되고 있습니다.

간헐천은 주로 화산 지대에서 볼 수 있으며, 지하의 깊은 곳에서 상승한 고온의 열수나 수증기가 보통의 지하수와 비교적 얇은 곳에서 혼합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 간헐천이 분출되는 과정 >

파이프 상부에서 100℃이하로 냉각된 열수가 서서히 흘러나 오게 됩니다.

열수가 상승해 지표 근처의 수압이 낮은 곳까지 올라오면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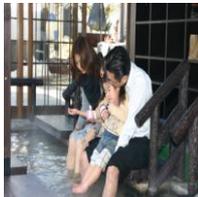
끓기 시작한 기포가 파이프 안의 수압을 낮추기 때문에 열수는 더욱 비등하며 하늘 높이 솟아오릅니다.

수위가 낮아지면 열수는 분출을 멈추게 되고, 이때 열수도 100℃이하로 냉각되어 비등이 끝나게 됩니다.

◆시카베초에 가면 이곳은 꼭~ 둘러 보세요!

☘간헐천 공원

시카베의 간헐천에 대해 널리 알리기 위해 1999년 4월 오픈하였습니다. 일본식 정원의 정취가 느껴지는 공원 내에는 산책로, 족탕, 휴게실, 조망관 등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족탕

공원 안을 산책하다 잠시 쉬고 싶다면 족탕에 발을 담그며 피로를 풀고 가는 것은 어떨까요? 신경통과 냉증에도 효과적입니다.



☘조망관

1층은 사진과 비디오 등의 자료가 전시되어 있으며, 2층에서는 분출되는 온천의 모습을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사미센 폭포

떨어져 내리는 폭포의 소리가 마치 일본 전통 악기 사미센(三味線)의 음색 같으며, 3줄기 갈래로 떨어져 흐른다고 하여 사미센이라는 폭포명이 되었습니다.



【시카베초의 이모저모】

◇ 시카베초(鹿部町)의 개요

- 면적: 110.61 km²
- 인구: 4,591명(2010년 9월 현재)

시카베초



·산업: 주요 산업은 어업이며 크고 작은 3개의 어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중 문어, 가지미, 임연수어가 잡히며, 특히 겨울의 주산업인 명란젓의 원료 명태와 가리비 잡이로 항구는 활기가 넘칩니다. 또한 시카베초의 중심이 되는 시카베강에는 가을이 되면 방류했던 연어가 거슬러 올라옵니다.

·기후: 1년 내내 온난한 편이며, 강수량은 홋카이도 중에서도 적은 지대에 속합니다. 또한 시카베초는 여름과 가을이 긴 편입니다.

◆「시카베」라는 지명의 유래는?

아이누어인 '시케투베'에서 유래되었는데, 약용과 염료 등에 쓰이던 귀중한 나무인 황벽나무가 있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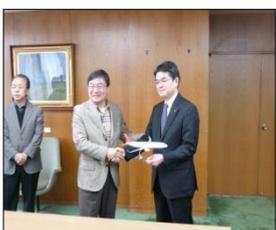
◆시카베의 <바다와 온천 축제>

매년 8월 셋째주 주말에 개최되는 축제로, 특산물 도매와 수족관, 보트경주 등 즐길거리가 다채롭습니다. 또한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밤에는 홋카이도 남부 최고라 자부할 만한 불꽃놀이도 열립니다.



이스타 항공 회장 일행 홋카이도청 방문

지난 1월 14일, 이스타 항공의 이상직 회장과 강달호 대표이사를 비롯한 간부들이 홋카이도청을 방문했습니다. 이날 방문단은 다카이 오사무(高井修) 홋카이도 부지사를 예방하여, 올해 3월부터 '인천-신치토세' 구간의 정기편 운항 계획 중임을 알렸습니다. 이에 다카이 부지사는 홋카이도와 한국과의 교류가 점점 활기를 띄고 있는 가운데, 저가 항공사인 이스타 항공의 정기편 취항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홋카이도의 매력을 직접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직 회장(왼쪽)과 다카이 오사무(高井修) 부지사(오른쪽)

이스타 항공은 2010년 1월~3월에는 '인천-신치토세' 구간 부정기편

을, 2010년 7월~8월에는 '인천-아사히카와' 구간 부정기편을 운항한 바 있습니다. 현재도 2월 27일까지의 예정으로 '인천-신치토세' 구간 부정기편이 주 4회 왕복으로 운항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3월 27일부터는 '인천-신치토세' 구간의 정기편이 운항될 계획에 있습니다.



(위) 이스타 항공 방문단과 홋카이도청 관계자

하코다테에서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으므로, 홋카이도 남단을 여행할 때 잠시 들러 축제를 즐겨보세요~



시카베초 관광 홈페이지 (일본어)

http://www.town.shikabe.lg.jp/hotnews/field_k.php



1972년 삿포로 동계올림픽의 무대

오쿠라야마(大倉山) 스키점프 경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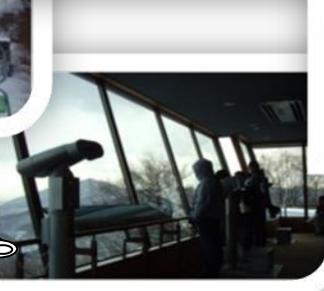
1972년 개최된 삿포로 동계올림픽의 무대가 되었던 오쿠라야마(大倉山) 스키점프 경기장. 지난 2009년에 개봉한 한국영화 '국가대표'에서 스키점프에 관한 감동스토리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면서 '스키점프'가 대중들에게도 어느덧 친숙한 스포츠로 자리잡기 시작했는데, 오쿠라야마 점프대를 찾아 그 감동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이곳 오쿠라야마 경기장에는 겨울은 물론 여름과 야간에도 점프가 가능한 최신 설비를 갖추고 있어 시즌별로 각종 국제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대회나 공식연습이 없는 날은 일반인들에게도 공개하고 있어 리프트를 타고 산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한 산정상에는 전망대로 위치하고 있어 삿포로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습니다.

2인승 리프트를 타고 점프대까지~



점프대에 서면 나도 그 순간만큼은 스키점프 선수~



하코다테 야경 부럽지 않은 삿포로의 야경~

삿포로 중심 시가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대도 필수!



1층 매점

오쿠라야마 크리스탈 하우스

점프 경기장 바로 앞에 자리한 휴식공간입니다. 1층은 오쿠라야마 오리지널 상품과 홋카이도 특산품을 판매하는 매점이고, 2층은 홋카이도의 명물 양고기요리 '징기스칸'을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 '램다이닝 오쿠라야마'가 있습니다. 탁 트인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창가에서 징기스칸을 먹는 것은 홋카이도 여행 중 또 하나의 매력일 것입니다.

삿포로역과 오쿠라야마 사이를 왕복하는 버스는 4~11월 사이에 운행중.



부라리 버스

삿포로 겨울 스포츠 박물관

삿포로 동계올림픽의 감동을 후세에 전함과 동시에 삿포로시가 지금까지 걸어온 겨울 스포츠의 역사를 소개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박물관 내에는 올림픽을 비롯한 각종 대회의 귀중한 자료와 겨울 스포츠에 관한 역사자료가 전시된 '전시코너', 가상체험을 통해 경기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체감 체험코너', 각종 경기 규칙과 최신 용구 그리고 선수 정보를 제공하는 '경기정보코너' 등 다양한 코너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점프 경기장 옆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경기장과 아울러 둘러볼 수 있습니다.



박물관 외관



박물관 내부

오쿠라야마 홈페이지 (한국어)
<http://www.sapporo-dc.co.jp/krn/okurayama/index.html>

후세에게 전해줄 보물

홋카이도 유산

◆ 그 두번째 이야기 하코다테 주변

☞ 하코다테 서부지구의 거리 풍경

1859년 개항과 함께 근대 일본의 개막을 알린 이곳에는 부두창고와 역사적 항만시설, 하코다테 구공회당과 하리스토스 정교회 부활성당 등 일본양식과 서양양식이 잘 조화되어 있습니다.



☞ 하코다테산과 포대의 자취

메이지 중기에 요새화가 진행된 하코다테산에는 그 당시의 군사토목유산이 남아 있습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출입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귀중한 동식물의 보고로 알려져 있습니다.



☞ 고틀카쿠(五稜郭)와 하코다테 전쟁유적

1868년 가을, 구 막부 탈주군의 침공으로 시작되어 이듬해 봄 신 정부군의 반격으로 고틀카쿠의 성문이 열리면서 끝난 하코다테 전쟁의 그 치열했던 전투를 실감나게 해 주는 유적지입니다.



☞ 노면전차 (하코다테, 삿포로)



홈페이지 <http://www.hokkaidoisan.org/>